

# 수축필름 종합메이커의 자부심 위더스케미칼(주)

## 옥수수 주원료 PET병 생분해 수축라벨 개발



신 영 수  
위더스케미칼(주) 대표이사

환경규제에 대한 선진국의 법규가 강화되고 중국 및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국제 특허를 바탕으로 하는 블루오션 제품 개발이 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 하락으로 인해 전 포장업계 역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PLA Shrink Label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포장업계 블루오션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위더스테미칼(주)(대표이사 신영수)을 찾았다.

1999년 6월 창립된 위더스케미칼(주)은 창립 이듬해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인정받으며 2002년 ISO14001 인증(EAGLE REGISTRATIONS INC), 2003년 ISO9001 인증(국제표준인증원)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해 오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올해 5월에는 신영수 대표이사가 제18회 모범중소기업인상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위치를 공고히 해 왔다.



▲ 위더스케미칼(주) 생산제품



▲ 위더스케미칼 (주) 안성공장 전경

위더스케미칼(주)은 현재 경기도 광주에 본사 및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안성공장과 황성공장을 가동하면서 PVC SHRINK FILM을 비롯해, PP(POLY PROPYLENE), ML(MULTI-LAYER), PL(POLY L-LDPE), PLA SHEET, PET SHRINK FILM과 A-PET SHEET 등을 생산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포장용기 라벨에 사용되고 있는 PVC SHRINK FILM은 수축 온도의 영역이 넓으며 장시간 보관 시에도 변형이 없다.

PP(POLY PROPYLENE)는 우수한 투명성과 광택으로

포장내용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적이며 FDA 규정에 적합한 필름으로 식품포장에 적합하며 강한 인열강도를 요구하는 제품포장에 적합한 ML(MULTI-LAYER)은 투명성이 우수하고 열봉합 온도의 범위가 넓어 집합포장, 문구류 포장에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L(POLY L-LDPE)은 냉동식품과 굴곡면이 심한 제품포장으로 사용되며 인열강도, 충격강도 및 타공강도가 탁월하다.

이 외에도 생분해성이 우수한 PLA SHEET, 탁월한 견고성, 투명성과 우수한 인쇄성

을 자랑하는 PET SHRINK FILM, 성형품의 표면에 응축된 수분이 물방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A-PET SHEET 등 위더스케미칼(주)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포장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위더스케미칼(주)은 최근 몇 년동안 과거의 내수시장 판매에서 해외시장에 전력을 다한 결과, 수축필름시장에서 매출의 급성장을 해 왔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수축 필름 시장의 매년 급성장함에 따라 세계의 우수한 END USER(Nestle, Coca Cola 등)에 PVC, PET 인쇄수축 라벨을 공급하고 있으며, 많

## WEDUS

은 인쇄업체에 무인쇄 PVC 수축필름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수출필름 사용량이 미비하던 중동국가, 아프리카와 동유럽국의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매출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위더스케미칼(주)의 발전을 주도해 온 신영수 대표이사는 “경영혁신을 통한 세계화된 위더스 구현”

이라는 경영 방침 아래 친환경적 신제품 개발에 전력 투구하면서 수출지향을 통한 BIG MARKET 확보 및 GLOBAL 체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번, 위더스케미칼(주)은 페트병에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라벨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축 라벨(PLA Shrink Label) 개발을 성공시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위더스케미칼(주)의 PLA Shrink Label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포도당으로 발효시켜 젖산으로 만들어 진 미국 네이처웍스社(Natureworks LLC)의 곡물 추출 원료를 공급받아 지난 3년동안 연구 개발한 끝에 완성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플라스틱 라벨과 달리 매립 시 온도, 습도, 미생물의 조건이 충족되면 5주만에 완전 분해되어 복합비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수축필름종합메이커로서의 자부심과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PLA Shrink Label 개발에 주력해 온 위더스케미칼(주)은 이달 일본의 포장전문전시회인 도쿄팩(Tokyo Pack)에 참가, 세계시장의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분해성 수축 라벨에



▲ 위더스케미칼(주)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

[표 1] 온도별 수축율 표

온도(℃)		50	60	70	80	90	100
위더스케미칼	MD	0	2	3	5	3	3
	TD	0	22	36	55	74	76
B사	MD	0	4	6	10	14	17
	TD	0	28	43	60	78	79

[표 2] 물성 비교 표

물질 특성		단위	실험결과		TEST METHOD
			위더스케미칼	B사	
두께		μm	50	50	ASTM D4321
생산량		in <sup>2</sup> /lb	11,249	11,072	ASTM D4321
인장강도	MD	kg/cm <sup>2</sup>	1700	1500	ASTM D882
	TD		570	570	
신장율	MD	%	480	200	ASTM D882
	TD		150	70	
흐림도		%	3	4	ASTM D1003



▲ PLA Shrink Label 인쇄 제품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성공한 기업은 현재 미국, 일본 등 2개 업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신영수 대표이사는 “벌써부

터 일본 우수 기업들의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면서 “경쟁 업체들의 제품을 입수하여 분석해 본 결과 위더스 제품이 우수한 물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위더스케미칼(주)의 PLA Shrink Label은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수출을 확대해 가는데 있어서 환경 규제 장벽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이점이 있어, 2007년 5백만불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더스케미칼(주)은 전략적이고 창조적이며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향후 PLA Shrink Label이 석유화학제품의 대체제품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위더스케미칼(주)은 올해 그룹매출 4백5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 1,000억 매출 달성을 이루는 한편, 상장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블루오션의 창출이라는 과제 아래 끊임없이 노력, 발전하고 있는 위더스케미칼(주)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K]

박초혜 기자